

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such as World News Review, 장수의 비결, 세계의 눈, and others with their respective broadcast time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including 올림픽스, 영어독해의 기본, and others.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실용관찰 비법 노트, and other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1일(음 7월 26일 甲子)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the 21st of August, list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캐릭터보다 영화 그 자체가 중요”

반전 로맨틱코미디 영화 ‘내 연애의 기억’ 은진 역 강예원



사랑이야기는 영화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소재라고 단언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전편일률적인 클리셰(상투적 표현)들이 난무한다. 어찌어찌해서 만나고, 위기를 겪다가 다시 만나거나 혹은 헤어지거나...

영원히 끝나지 않는 내버엔딩스토리. 늘 반복되는 이 사랑이라는 소재가 재미있지만, 가끔 물릴 때도 있다. 그런 점에서 ‘내 연애의 기억’은 영화적 완성도를 떠나 신선한 구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눈길을 끈다. 영화는 로맨틱코미디로 가다가 스릴러로 방향을 선회한다. 전반부까지 끌여온 이야기가 맥거핀(속임수)으로 느껴질 정도로 스릴러로의 방향 전환은 빠르며 공격적이다. 그리고 이 급전환을 완충하는 캐릭터가 바로 주인공은 진이다. 주변에 한두 명씩은 있는 평범한 이물이지만, 독특한 성격의 여자다. 성격 급한 그녀는 10대 시절부터 연애를 거의 없이 한 ‘고수’이지만, 또한 그렇게 많이 하고도 늘 상태에 당하는 ‘허담’이기도 하다.

지난 2009년 ‘해운대’ 이후 총무로 코미디에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맡아온 강예원(34)이 은진을 연기했다.

“시나리오를 보고 무조건 하겠다고 했어요. 새로웠고, 반전도 좋았어요. 읽으면서 너무 좋아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에선 영화의 사이즈가 작아 염려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배우로서 이 작품을 하면 창피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조선미녀삼총사’에서 함께 출연한 송새벽과는 이번 영화에서 상대역(현석)으로 처음 호흡을 맞췄다. 말투가 빠르고 빠른 리액션에 걸들인 강예원으로서의 느린 말투의 송새벽과 대사의 템포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원래 사석에서도 만나는 친한 분이예요. 송새벽 씨도 연기 패턴이 있는데, 제가 자꾸 귀찮게 했어요. 저랑 함께 대사를 맞추는 연습을 자주 했어요. 그런 연습을 한 건 연극할 때 이후 거의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영화는 장르가 다른 두 편의 영화를 잇듯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 극적인 밸런스도, 템포의 강약조절도 쉽지 않았을 터. 강예원은 “반전을 생각하지 않고 연기했다”고 말했다.

“순서대로 찍어서 감정 잡기는 수월했어요. 현석의 비밀을 알게 될 때마다 놀라는 저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시나리오에 미리 읽어 내용을 알지만, 그 내용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이번에는 솔직하게 제가 반응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강예원은 그동안 코미디에서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다. ‘릭’ 이후부터는 거의 코미디를 찍었다. 이번 영화뿐 아니라 차기작인 ‘발칙한 그녀, 까칠한 그놈’도 로맨틱 코미디다.

“제 안에 유쾌한 부분이 많아요. 원래 ‘내 연애의 기억’ 시나리오에는 유쾌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물론 제 안에 유쾌함도 있지만 깊은 슬픔도 있어요.(웃음) 코미디 영화에 자주 출연한다는 주변의 우려가 있긴 해요. 그렇다고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주지 위해 영화를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 영화 선택의 첫 기준은 이야기예요. 캐릭터는 그다음이죠. 굳이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다른 역할이 찾아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여배우로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혹은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는 건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대다수 여배우가 캐릭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스타가 되는 것, 스타성이 뛰어난 것, 영화배우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영화를 같이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미디만 했으니 다른 걸 해야 한다는 압박, 꼭 그런 건 없어요. 변신보다는 이야기, 영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때문일까요? 주변에서 그래요 ‘여배우 일자리가 없다는 데 너는 어디서 그렇게 주워서 잘하느냐고요.’”(하하)

“완전체”로 몽치면 힐링되는 느낌”

그룹 JYJ 3년 만에 2집 ‘저스트 어스’ 발매

“3명이 함께 하는 앨범 활동은 이제는 부담감을 주기보다는 정말 우리들의 안식처 같은 느낌이에요.”(김재중)

홍콩에서 만난 그룹 JYJ(김재중·박유천·김준수)에서는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편안함과 넉넉함이 느껴졌다.

3년 만에 함께 발표한 2집 ‘저스트 어스’(JUST US) 발매와 함께 아시아 투어에 나선 JYJ는 첫 해외무대로 홍콩을 골랐다. 홍콩 아시아월드드레스포에서 열리는 공연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현지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난 JYJ의 김재중(28)은 “3년 만에 ‘완전체’로 몽쳤는데 팬들에게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느낌보다는 각자 열심히 일하다가 앨범 활동하면서 ‘힐링’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런 그의 설명처럼 셋은 드라마 출연과 영화 촬영, 뮤지컬 공연으로 최근까지 바쁜 나날을 보냈다. “심할 때는 셋이서 석 달간 한 번도 못 봤을 정도로” 바빠 활동하느라 JYJ 앨범은 3년 만인 지난달 29일에야 ‘지각’ 발매됐다.

개별 일정을 끝내고 숨돌릴 새도 없이 아시아 투어에 나섰지만 이들은 긴장감이 몸에 굳어 있기보다는 발랄하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김준수(27)는 “셋이 몽치면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 셋이 함께 있을 때 ‘힐링’되는 느낌이 거기에 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앨범에도 그런 점이 잘 녹아들었다는 것이 셋의 공통된 평가다. 보통 아이돌 그룹들은 새로운 앨범의 콘셉트에 맞는 곡들을 받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100곡에 가까운 후보곡 중 각자 좋은 곡을 5곡씩 뽑았고 그중 3곡이 일치했다. 이를 중심으로 새 앨범을 꾸렸다. “이런 앨범은 뭔가 형식적인 모양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셋에게 어울리는 음악,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음악을 편하게



하자는 마음으로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앨범 제목도 그냥 ‘우리 다시 왔어요, 우리 나왔어요’ 이런 의미에서 유천이 ‘저스트 어스’라고 지어준 것이예요.”(김재중)

앨범에 수록된 ‘백 시트’(BACK SEAT)도 “셋이 30대를 앞둔 만큼 거기에 어울리는 분위기가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 타이틀곡으로 결정했다”는 김준수의 설명이다.

JYJ가 함께 홍콩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0년 월드와이드 앨범 ‘더 비기닝’(THE BEGINNING) 발매 기념 쇼케이스 이후 약 4년 만이다. 김준수는 “이번 투어에는 셋이 함께 나온 만큼 그에 걸맞게 무대 규모가 커졌다”면서 “특이나 댄스, 편안한 음악 등 서로 색깔이 있는데 그런 점을 지난 3년간 각자 해온 행보대로 어느 정도 보여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방송 출연 없이도 팬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그만큼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외압에 의한 부조리함에는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김재중) /연합뉴스